즉시 배포용: 2016 년 8 월 1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 노동절 주말까지 음주 및 취중 운전 일제 단속 발표

8 월 18 일부터 9 월 5 일까지 주 경찰과 지방 공권력을 통해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캠페인 실시

앤드루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음주 및 약물 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중 가장 많은 시기 중 하나인 노동절 주말까지 이어지는 전국적인 취중 운전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주립 경찰에 법집행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8 월 18 일을 시작으로 9 월 5 까지 이어지는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맨정신으로 운전 안 하면 단속당한다) 캠페인은 지방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실시될 예정이며,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운전자들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공권력은 모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취중 운전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하고 위험한 범죄이므로, 저는 뉴욕 주민들이 책임감 있는 운전을 통해 어리석은 비극을 방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취중 운전은 차량 충돌 사망 사고의 주된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전역의 전체 차량 충돌 사망 사고 중 3 분의 1 이 음주 운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는 2015 년 경찰 발표 충돌 사고 가운데 음주가 관련된 사건이 7,000 건을 넘었으며, 불법 약물과 관련된 충돌 사고도 800 건을 넘었습니다. 더욱이, 취중 운전 충돌 사고에 따른 비용 피해는 미국 전체적으로 매년 440 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취중 운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15 년 동안 DWI 또는 DWAI 혐의로 3 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D 급 중죄 처분을 받아 최장 7 년의 형기와 최대 10,000 달러의 벌금을 치러야 합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 의장 권한 대행 겸 차량관리국(DMV) 부국장 Terri Eg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취중 운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행동으로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까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경찰이 먼저 여러분을 발견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뉴욕 주의 취중 운전 처벌 캠페인은, 참여 카운티가 자기 지역 내 음주 및 기타 약물 관련 위반자들로부터 징수된 벌금 전액을 환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포괄적인 재정 자립형 고속도로 안전 프로그램인 STOP-DWI 와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Traffic Safety Committee)는 전국적 일제 단속 활동과 공조하여 주 전역의 법집행과 교육을 지원하며, 연방 예산을 사용하여 취중 운전 방지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여타 주 전역 법집행을 위한 가용 자원을 보충합니다. 여기에는 주 전역의 공공 정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자문 그룹, 주 정부 기관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연구 조사 및 프로젝트 등이 포함됩니다.

일제 단속 기간은 핼로윈, 겨울 휴가철, 슈퍼볼(Super Bowl), 성패트릭 기념일(St. Patrick's Day), 전몰장병추모일(Memorial Day),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노동절(Labor Day) 등등 많은 수의 취중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41 개 카운티가 참여한 지난 해의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노동절 일제 단속 기간에는 DWI/DWAI 체포가 237 건, DRE(Drug Recognition Expert) 평가가 17 건, DWAI 약물 관련 체포만 26 건, 기타 체포가 317 건이었으며, 차량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관련 소환장 발부는 3,400 건을 넘었습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 주 경찰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취중 운전자들의 오판 때문에, 없었어야 할 비극과 희생자들을 위한 밤샘 추모식이 벌어집니다. 뉴욕 주립 경찰은 교육과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서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 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저희는 사람들에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협력한다면, 우리는 뉴욕 주의 도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Peter R. Kehoe 뉴욕주 보안관협회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10,000 명이 넘습니다. 인재의 손실,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기여의 손실, 삶과 성장 기회의 손실 등등, 단지 몇 사람이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파괴해버린 그 모든 잠재력의 손실을 생각해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비극이며,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입니다."

Margaret E. Ryan 뉴욕 주 경찰서장협회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연한 사고도 아니고 피해자 없는 범죄도 아닙니다. 매년 수천여 명의 인명이 취중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애석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주 경찰서장협회는 취중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운행을 막고 불필요한 사망 사고를 줄이는 법집행 전문인력들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명시적 단속활동(HVE)을 전면적으로 지원합니다. GTSC 및 법집행 협력기관과 함께, 저희는 일년 내내, 특히 다가오는 국경일 주말 기간 중 우리 주의 도로가 모든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심각한 문제인 알코올 오남용의 징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주민들은

휴일 없이 하루 24 시간 운영되는 HOPEline 무료 전화 1-877-8-HOPENY(1-877-846-7369) 또는 HOPENY(467369) 문자 서비스를 통해 중독 문제와 관련된 도움의 손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중독치료기관에 관한 정보는 뉴욕 주 알코올 및 마약류 오남용 서비스(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이용 안내 웹사이트 또는 치료 제공 현황(Treatment Availability) 대시보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음주 또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관해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추가로 활용할 자료가 필요하시면 주 정부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Arlene González-Sánchez 뉴욕 주 OASAS 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여러 협력기관들이 모든 운전자들의 도로 안전을 위해 기울여 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중독은 만성적 질환이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 또는 알코올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서는 회복을 통해 건강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